

XY
記

미리 청한 嶺南에 六薛한
 十月二十七日 子夜
 다 許가게 가서 또 七龍동
 山 金교자로 일하였지요 그리
 고 다시 미국에 돌아가서도
 교회를 오랐읍니다.
 「그리던지 지금 兪씨는」
 「二十四日 때에 처음 한국
 왔는지가 벌써 四十五년이 지
 났으니 거의 七十이 넘는다」
 「그러면 六十九세 루군요」
 「한국에서 일하시는 이 야기나
 간담히 말씀해주십시오」
 「나도 개성서 났었고
 춘천서 한 六년 원사서 五년
 서에서 제일 많이 十六년동안
 있었지요」
 「물 전도사 일을 했지
 만 특별히 주일학교 사업도 하
 고 후회되는 일이 인도했지요
 감리회는 잘이나 상주까지 구
 격이요도 조선이나 만주까지도
 도 안간데 없지요 황해도 해
 주 새영 육목으로는 선천 신

그러면 꼭사님 곁에

은 「한」 좋은 말을 배우고 싶어요」

「저는 언제나 저 성신의 힘을 믿습니다. 저는 성신의 힘을 믿어 나서는 것을 확실하게 압니다.一九三一年입니다. 내가 평양 송의학교에 가서 부총회장을 인도하게 되었는데 그 때에 박박교와 같은 때 그 사람이요 그때도 무슨 관사가 없었고 유해해서 하나님을 믿음 수 없다고 모든것을 의심하는 학생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때에는 별다른 원인이 나타나고 그 때로써 많은 큰 세습을 받았읍니다. 그때일은 참 잊을 수도 없지요」

「이왕 하십시오」

「한 학생이 나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발표 말씀이 하셔야 저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목사님 자주 회개하구 의사학을 받으라고 하시지만 저이는 의가없읍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학생을 그렇게 해서 시종 「한」 선생님을 숭앙합니다」

10

기사의 문에 박사는 다시
말씀 계속하여 없었습니다. 어조로
"기도할수 학에 없습니다. 나는
한국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
나다. 뉘가 지로 기도하는 일이
있는데 지금까지의 정경으로 보
아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읍니다. 나는 유복히 한
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것이
국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
"감사합니다. 사실, 그것이
매일 필요합니다. 우리 한국사
학들은 지금 열려를 많이 합니
다. 믿을 없어서 그 부실지마는
장차 어떻게 될가 하고 열려
를 많이 합니다."

한 아들은 韓國宣教師

「자녀들은요?」
내 할 아들은 내 취원에서
목사일로도 둘째아들 정도 목
사로 그 린보에 있고 셋째 막
시운은 에메리 신학교 교수요
넷째 황준은 신학교로 한국에
왔다가 지금은 미국 갔지요
셋은 한국서 받았고 하나는
미곳서 나왔나 넉달 후에 남
한국에 왔습니나.

기자「청 중을하십시오. 축복
 많이 받았습니나. 그러면 목사님
한국 가실 마음 많으시겠지요」
「내가 일본말로 배우고 학바
있을때 서한아 말도 배웠으나
다 잊어버렸지요 그러나 조선
말은 안잊어 버렸습니나. 지금

이라도 한국에 가서 전도할
마음 많으나 아직 허락되지아
는해서 못합니다. 이제 할수있
는대로 가려고 합니다. 여기 있
어도 가서 일하는이도 한국사
람이오 도 이윽게 한국양반을
가끔 만나니까 한국에 간것같
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기자「피곤하십니까. 너머
러 설레하였습니나」하고 기자
는 현관까지 따라나오시는 박
사을 작별하고 돌아왔다. 풀
으로 막사는 지금 유엔 사령
부에서 역시 우리 한국을위하
여 일하시는것을 말해준다.

☆

懸賞論文募集

수옥
—윤별고
컨저
들어가
수옥
어려
이로
났으
세

루터의 免罪符問題를

羅曾男

필자는 지난번에 종교개혁자 이 전리인을 알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성경에 깊이 배운 사람 성경의 진리는 우리나라 정통
 에 대한 순복하고 개혁을 요구하고 주성령의 두루마기의 교훈같이
 아난 부인하고 노략한 사심을 일깨우 보기에 무가결사적인
 성경에 깊은자가 어떻게 개혁 용기와 불이에 대한 열정성을
 을 일으켰으며, 그렇게 순복한 이르키는 것이라는 점을 잘못알
 루어 있었다면 루터스트(反抗) 고 있었던 것 같다. 더욱이 우리
 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을 갖 자라난 사람들의 동양을리에서
 다시 루터의 전기의 다 자라난 사람들의기 때문에 을바
 을 패지을 의미하는 깨닫는 것 루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치.
 을 여기에 쓰려한다.
 우리는 신약판의 다 바 루터라는 성경을 우리와같이
 르지 못한 것 같다. 성경은 인간을 전통적교훈에서 읽은 사람이 아
 니기 자같이 매끄러워하는 것 나고 예수님의 성령공부과 같이
 양 있고 순복이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치는 참도리를 일
 할을 순복이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치는 참도리를 일

公義의道

어린양의震怒

香氣
웨슬레의 經驗

죽일 사람으로 모래비안 파
내 속하는 남녀일행이 조곰
도 왕급한 기색이 없이 침
착하고 안심하여 찬숙을 부

兒童劇

아름다운 꽃들

수옥	아이 어쨌거나 어머니가 오셔서 난 갈때 집들 사람이 있어야지	현석	어머니 공장에서 여려한줄아 오셨니?	수옥	응 내가 여자까지 아이 오리라고 그랬는데 아직 참 속상해!	준자	웃심! 내 뒤통에 가서 시계 보고 오게	악설	(右便으로 퇴장) 오늘 일선생님 한테 단단히 기합 받았는대?	준자	그러기에 말이야 (중장)	수옥	이실뿐이나 지냈어... 나 어머니 오십 분 가께 니이를 건져 가져다	현석	그래두 같이 가져지! 이만 해서.....그럼밖에 들어 가지 추운데 늦어진 대신 방에 들어가서 노래 연습이나 하자	학철		수옥	(눈길고 견저 들어가서 창바닥을 잡치며)어서 들어와 아침에 잠발을 했더니 머리두 드뚱하다.	일동	(가장보통을 함 제각의했다) 가즈런히 놓고 수옥을 따라 들어간다.)	삼이군인	(양쪽 자석이 문 받고 서둘러 左便으로 등장 안쪽 다리가 있다)	현석	란말노래 부려 연습해보자	일동	그래 그때 시-작! (노래 부른다.) 축하 하세 동무들이 우리 구주 예수님 탄생 하신 크리스마스 오늘이 산다. (右便에서 등장 삼이군인등과 함께 란	수옥	라 간다) (임기처에 콧물 내다 본다)	문래	(삼이군인의게)미안해서 (입원하)	문래	(입고 기쁜 얼굴로지 내가는 것음)	현석	(방에서 나와) 문래여? 그 아저씨 여비종 쉬었다 가지게 하면 좋겠지요? 아파가 세가 업어드릴라 그럴라우? 아니야 안 됐으니까?	현석	문래 목?	현석	아저씨 우리 동무들 다 참 착한 애들인데 아저씨 좀 쉬었다 가실까요?	삼이군인	고맙나 여긴 천천히 애들이 이렇게 앉으나 (문래 등에서 내린다) 메리고 드러난다) 수옥 에서는 이리로 앉으세요 (현석에게) 아산 내가 잘 못했따 (문래 손을 잡으며) 문래야 고맙다 내가 잘못했어 어서 들어가자 (밖으로 들어간다) 수옥 (군밤을 각기 삼이군 혼자) (참새목소리) 밖에 내놓는다.	현석	준자 좀 잡주세요 아저씨! 삼이군인 아니 이런 행徑이 없지 내 동생들이 생식하는구나 나도 고양에 가면 너이를 줄은 동생들이 있단다 아저씨 신문 보시면서 천천히 올라 가세요 (신문을 준다)	학철	아저씨 구주 잘 담요 드리께요 (삼이군인과 현석등은 구주를 받는다) (三子를 받는다) (三子를 받는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바라기

田榮澤

을 뚫어 하얗게개진 일의열을
온 음자세히 바라보고싶은내
거울처럼 열광을바라보자면
보달것없는 끝을가지고임을
바라보노라니 열마나 눈이부
시고 열마나 힘이 들것어요
열마나 부끄럽겠어요 내팔에
기쁘고 온갖
기쁘고 온갖
기쁘고 온갖

나를 내리보면서 임을
내뿜을
꼬일라고 추파를
나는 모른제하고 잘
고벼슬 숙이고 잠
자지요
★
오오!
패로는 실술
뜻은

읽히셨지요 생각하면 그것이
 더 설은 일이지요 내 마음처럼
 온 구슬이 깰로이.....
 ★
 나는 가끔 가끔 때만한 고
 임도 사곳 시곳한 교생도 겪
 으면서 내일은 임만 바라코
 리고 도리켜 주님을 바라코
 있지 않아요.
 내 일생의 아픔에는 어찌
 서너어나 편안 할때나 어
 때나 나는 줄곧 주님만 따
 임을 바라코 살아가는 해바
 가랍니다.

고하고 가서 점심식사할 때까지
 배에 넣고 싶어도 없던 저녁에
 있는 동생과
 교외로 가서 일본
 교회의 소식을 전하
 면서 말씀을 하게 되었다.
 이밖에 누도류 몇 점은 친구
 유감스러운 것은 종교복사
 사할 하였다 그러나 성서학
 공로 하였던 것을 보고 작별과
 김준배 회경주 목사 두분과
 목사 두분 총무와 예수교회서
 김준배 회경주 목사 두분과
 목사 두분 총무와 예수교회서

교 육 별 이 남 는 점 은 천 주 를
이 후 온 군 에서 교 육 계 에서
후 온 사 회 사 업 에서 불 안 고
을 하 면 서 아 요
이 적 적 하 게 일 하 고 있 는 이 들
을 볼 때 에 여 기의 그 들 의
숨 기 나 다 는

故國行
(3)

거절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모
 리 눈부심과 뜨거운 피물이
 나를 피움새 해도 이것은 임
 을 사로하는자의 큰 시련임을
 알고 나는 참고 참고 임이
 가는대로 가는대로 따라가지요
 ★
 그리고 저에게도 눈감고 잠
 들어 자는 동안에도 꿈에 내
 지요
 비바람에 내 몸이 승리의가
 깎여지고 내 머리는 함애나리
 저 전함에 구겨 약이지요
 그래도 그때에 옛날에 쓴가지
 는 돌비 풀무대기 속에서 붉
 은 피를 흘리면서 도하를을 바
 라는 스테판처럼 주님을 바
 라모시요 죽나도 주를 바라보

몇날뒤에 나는 나의 피난지
요 제이 고향이라고 할수있는
진해로 끌리는듯 왔다.
내가 진해로 끌리어 간것은
거기에 내 딸과 그소생들이있
는 곳으로 六.二五사변을 피
하하여 가족들 서울에 두고 중
략가윤서물을 쓰임 받았고 중
정임의로 서울을 후퇴하
고한
진호(金鎭浩) 목사님장은이가
개시고 김선량 장로와 최운
씨 전총목 한태유 목사장은
벧천주와 그밖에 몇은 좋은
친구가 있기 때문이다.
도로일 밤 피곤한 몸으로
김진호 노사(老圃)를 찾아
회고 주일 아침에는 전총목
과 그의 가족들, 서유숙
과 그의 가족들, 서유숙

진해를 자벌하고 나는 마산으로 갔다. 마산에서 창신 학교에 있는 김우현(金禹鉉) 목사를 만나서, 말쑥한 정답과 학교이 야기 교회의 야기에 시간가는 줄을 모른다. 중앙교회에 기

시 연락을 부인하였으나 파나 에 연락이 못되어 뜻을 이루 시 못하였다.

다만 나라의 주제를 맡으실

英國改譯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겨우 철자법을 바꾸한 정도이니 출판

聖經完成
 卅九年 六月 卅日
 一 主筆

英國改譯聖經完成

가슴에 임의 빛나고 아름다운
열광을 끌어 모는 것이 내 줄거
에도 임을 보는 내 줄거
이요! 내 기쁨이됩니다.

그러게 내리위에는 사람에게
찬란한채림처럼으로 그 청보
자란 눈들을 반짝이리면서

★
설마 그보다도 내게는 가장
오! 때가 있지요 나는 임을
정성껏 바라보는 데 일인지
로아주시는 데 행 나옴으로
유적 힘내줄 겸은 나옴으로
발울 가리우실 때 그 때가 나

자 가 죽을 때라고 다시 피난
이녀도 안을 지내면서 정
교회를 시작한 곳
인연이 있기 때문
그리고 거기 있었
다. 학교의 교관들이
다수 한

로할 만하다. 예배당을 신중하게
는 고심함을 들였다. 아모 예
산이 없이 사적이천만 이라는
대공사를 믿음으로 시작하였다
는 것은 과연 믿음의 일이었
다. 오직 하나님께서 천히
한 것이니 모든 일을
원히 모셔서 이만,四千년후부터
일 하시리라. 많은 수고 오직
되였기니와 일만하는 벌서 구
어찌로써도 개혁하는 사업이
진행되었고, 미국 에
신학교에서는 사제와 대표
학자三十二인으로 구성되려
한 것이니 이만,四千년후부터

다. 이 간행물은 영구한 자료의
 3년 동안 걸쳐서 필연한 경우
 제임스판 성령의 나운 이래로
 영구성으로만 가장 중요하고
 완전한 표준 판본 Revised
 Standard Version 이 판본
 완성되어 지난 수월초에 미국

서울에 갔을때에, 대한발명장려
회에 등록한 교안자가, 60여명
이 있었으나, 그 때가가 대동
소이하여, 즉 영문식이나 일본
식이나 하는것이 다른것 뿐이
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사
용되고 있는것은, 일본트와회사
에서 제작한, 만능기가 사용되
고 있는데, 1950년 4월경에, 약
6,000 대가 남한각지에 있었으
나, 일본의 5만대에 비하면,
비교할수 없는 숫자이며, 지금
은, 더 적으리라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 단계로는, 영문식
도 아니고, 일본식도 아닌 독
특한것은, 경제적으로나 설비상
으로나, 기술상으로나 불가능하
므로, 우리 한글은, 영문식이나
일본문식이나, 자유로 이용할수
있는 글이다. 풀어쓰기나, 할자
식이나, 음절식이나, 자유로 이

팔자제작과 모든 하위에, 우리
한글을 넣어서, 연결하여 이용
할수 있는 연구를 하여, 우리
가 다 문맹이기인 라옌을 사
용할수 있는, 라이피스트가 되
도록, 검토가 철저이다.
지금 일본에서는, 매년 각처
에서 라이피스트 경기대회를
하게 되는데, 해마다 이 전
국적 경기대회를 볼때마다, 필
자는 한글라이피스트경기대회를
생각지 않을수 없었고, 많은
격려와 자극을 받게되었다. 필
자가 1950년 4월에, 서울 상
공회리초에서, 50명이 모인 한
글라이피스트 경기대회에 참
석하였는데, 10분간에 30 자 역
은 라이피스트가, 최고기록이었
는데, 지난 10월19일에, 동경
일본라이프 별당에서, 라이피스트
의 경기대회가 있었는데, 148

안에 553 자 이었다. 우리는 한글전용으로 하면, 이 이상의 용도로, 적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국한학교로 부터, 타옌 팍목을 두어, 가르치고, 연구하고, 타이피스트를 양성하여, 좋은 타옌을 고안하여, 제작 할 수도 있으며, 사무용이나 인쇄용, 중신용으로,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 우리는 우리의 문화상에나, 인쇄학상에나, 이와같이 중대한, 없지 못한 타옌연구와, 제작, 보급과 아울러 타이피스트를 양성하고 타옌을 잘인인식하고, 연구 할 기회를 좌우하는 열의이며 기쁘고 믿는 바이다.

한글과 인쇄 (二)
 1. 한글활자의 제한
 2. 제한은 1000 자 이하, 한
 3. 무제한으로 사용되고 있다
 4. 처음에는 1만 자 이상
 5. 정정 정리되어서, 지금은
 6. 2000 자 가량 사용되고
 7. , 그중에도 정리하고 제
 8. 야 할, 글자가 적지 않다.
 9. 쓸 때는 제한문제는 필요
 10. 다) 이것은, 오전과 사후
 11. 설명을, 사전에 관한 것
 12. 문제이고, 일관으로 사용
 13. 는, 이것이 절대로 필요
 14. 일 것이다. 지금 본국
 15. 해상, 활자근의 현상에
 16. 육 근 문제이다. 그 제
 17. 는, 1000 자로 1200 자
 18. 만 넘겨볼 것이다. 하로으
 19. 도 들은 합자하면, 2
 20. 도 작자할 수 있다.

의 문화수준을 높일려면, 한글문화의 인선에 대한 인식 있다. 인선을 무시하고, 없이 없는 곳에는, 문화이며,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그 나라의 총량은, 인의 기초가 되는, 인선 여하게 있는 것이다. 이 인선은 국가의 총량은, 있는 것이므로, 우리는, 오 같은, 국가적으로 전무 일대위기에 처한 동란 시대, 종전문화와, 같은 문화술, 구술하고 지기 하여, 인선학을 의무교육 하며, 대학에 이르기까지 두어, 국민전체가 인 이해하고, 인선공이 되도록 인선학이 있어서, 인선장 제신문들을 발행하여, 인

발표하여야 할 것이다.
타탈라이치의 인식
나라를 물론하고, 라옌
 많이 연구하고, 사용
이 제작하는 나라마다,
의 문화수준이 높고,
이 높은 것은, 숨길 수
설이다. 1884년 미국인
, 캐밍은 타탈라이치에서,
제작하게 된 이후로,
미국에서 이원익씨,
, 그후에 언더우드 선
기주씨가, 한글 라옌을
, 조공 제작하였으며,
로 공병우씨, 김동준씨
6. 송계범씨, 서상덕씨,
, 필자가 1950년 4월에

이스라엘 政界에 旋風

聖句
신자도 여호와
취하신 자도
위지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
받을 지니라。
(욥) 21)

[illegible]

것이다. 따라서 英國 보이도
오아씨와 米國 마크로-린씨가
등장하여 소신을 피력하였는데
각대표의 등장할때마다 장내가
떠날듯한 박수가 이리났다.

다. 도덕에
있는것이 그대로
있고요. 이런 지식의
없는 것은
역사적인 아제나 민족에게
포함한 것이
문란한 것이다.
은
인생에서 국가하여
를 개척하여
승리의 한
기초를 세운
크다
박사는 생물과 화학의
로 시아 출생이오
년세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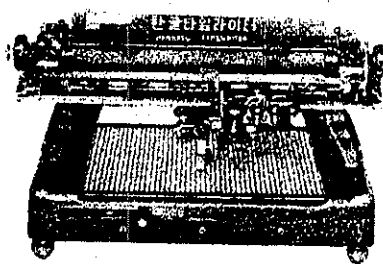
韓服 치 마 갑 其 他

場 工 本 岩 賣 販 都 產 生
詢 鐘 李 主 營 經

京都市上京區大宮通蘆山寺上ル
西入社横町288 電話西陣(4)5852番

한글打字機發賣!!

最新型(携帶用)事務用



12P明朝體也 彫刻活字
A. 한글 專用 1,500 字
B. 한글, 漢字 兼用
한글 1,200 字 漢字는
文敎部選定 1,000 字

래랜랠랭레렛레로마막만

한글 타옌社

代表 張鳳仙
東京都品川區大井伊藤町 5710
連絡事務所 東京都千代田區神田猿樂町 2 一
韓國 Y M C A 內電話 神田 (25) 26

萬能機，事務用
印刷用， 모노라인
其他，印刷機一切
修理及販賣